'남녘의 서정' 따라 제주에 펼치는 한국 미술사

여미지식물원에 갤러리b
부국문화재단 소장 대표작
이달 5일부터 개관기념전
소치에서 강요배까지 8명
'남상규 콜렉션' 본격 공개

남농 허건의 '부여소견'.

천경자의 '길례 언니'.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한 그는 졸업 후 가업을 이어야 했다. 사업이라는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은 그가 힘들고 답답할 때 숨을 돌린 곳은 그림이었다. 화가들과 친교를 나누고 화랑을 찾았다. 그 때부터 하나둘 작품을 수집했고 20년 전 쯤에는 문화재단 결성으로 이어졌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여미지식물원을 운영하는 부국철강 회장인 남상규 부국문화재단 이사장이다.

부국문화재단은 2000년 12월 설립 이래 전시, 학술 지원, 소장품 기증 등을 펼쳐왔다. 2006년 1월에는 제주도에 국가 보물로 지정된 '신해년 책력' 등 추사 김정희 관련 유물 22건 51점을 내놓았다. 이는 지금의 대정읍 제주추사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 부국문화재단 소장품은 약 500점에 이른다. 광주 출신인 남 이사장이 구입해온 남도 작가들의 작품이 단연 많다.

남상규 이사장이 부국문화재단 소장품을 기반으로 여미지식물원에 갤러리b를 꾸몄다. 갤러리b는 부국문화재단의 영문 첫글자이면서 식물원(botanic garden), 식물학(botany)을 뜻하는 말이다. 여미지식물원을 인수하고 2009년 '제주 보태니컬 가든 아트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10년 간 계속된 노사갈등과 운영난으로 그 꿈을 다 펴지 못했고 부국문화재단 역시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 최근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더 늦기 전에 오랜 바람을 실현해보자며 뛰어든 일이 갤러리 조성이다.

강요배의 '물무늬'.

갤러리b는 이달 5일 개관 기념전으로 그 출발을 알린다. '남녘의 서정'이란 이름 아래 소치 허련에서 강요배까지 '남상규 콜렉션' 중에서 8명의 작품 50여점을 골라 선보인다.

전통회화 가운데 소치 허련의 '추경산수', 의재 허백련의 '고사관수', 남농 허건의 '부여소견', 아산 조방원의 '연꽃동자' 등 대표작으로 꼽을 만한 작품들이 나온다. 근현대 회화로는 오지호의 '시크라멘', 김환기의 '무제, 19-1-68', 천경자의 '길례 언니', 강요배의 '물무늬' 등 20세기 한국현대미술사에서 큰 획을 그은 작품들을 모았다.

남 이사장의 미술품 콜렉션은 '지역성을 뛰어넘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에 바탕하고 있다. 개관전에 나오는 작가들 역시 제주, 전남이 고향이지만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갤러리b에서 기자들과 만난 남 이사장은 소장 배경을 더해 개관전 작품을 꼼꼼히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많은 작가들이 초기작을 뛰어넘지 못하고 꺼꾸러지거나 '골목대장'으로 안주해버리더라"며 "그걸 극복하려는 화가가 진정한 예술가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에 열린다. 이 때는 개관전 도록에 논고를 쓴 이태호 명지대 미술사학과 초빙교수의 작품 소개 등이 예정되어 있다. 개관 기념전은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부국문화재단은 갤러리b를 식물 콘텐츠 위주의 특성화된 공간으로 꾸려갈 계획이다. 제주도내 공립미술관 공동전 등을 통해 소장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려는 구상도 밝혔다. 남 이사장은 "그동안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과 공동 전시를 가져왔는데 제주에서도 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도문화진흥원 예술교육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행복)은 9월 1일부터문예회관 연습실에서 지역예술인들이 교육자로 나서는 문화예술교육 '예술로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한국무용 배우기'와 '자화상 그리기'로 짜여져 주 2회씩 총 20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무용 배우기'는 제주도립무용단 정기공연 때 선보였던 '태평성대'를 주제로 전통춤의 다양한 기본동작을 익힌다. '자화상 그리기'는 수채화기법으로 인물화를 그려본다. 문의 064)710-7656.

제주영화제 씨네토크 데이

사단법인 제주영화제(이사장 권범)는 9월 10일 오후 7시 30분 롯데시네마 제주아라 1관에서 제주영화제 멤버십 회원을 위한 '씨네토크 데이' 다섯 번째 행사를 연다.

이날은 제주 조간대의 생태계를 조명한 임형묵 감독의 해양 다큐멘터리 '조수웅덩이: 바다의 시작'을 상영한다. 밀물과 썰물로 생겨나는 조수웅덩이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담은 영화다. 임형묵 감독, 고은영 녹색당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책위원장 등이 씨네토크를 펼친다. 유료. 문의 064)748-0503.

제주프린지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제주민예총은 10월 18~19일 옛 코리아극장 앞과 칠성로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열리는 2019제주프린지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가치=보다'란 슬로건을 내걸어 사람들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들을 지우고 만연한 차별을 허물며 더 나은 가치를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 분야는 제프스테이지, 제프갤러리, 제프아트마켓이다. 모집 기간은 9월 7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jejufringe.com)참고. 문의 064)758-0331.

메세나매칭그란트 접수

사단법인 제주메세나협회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2019 메세나매칭그란트 사업 참가자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메세나매칭그란트사업은 기업이 지원하는 금액에 제주도가 추가로 비용을 더해 운영된다. 신청분야는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시각예술(미술, 영화, 사진 등), 전통, 문학, 다원예술 등이다. 예술단체 최대 3000만원, 개인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매달 심의해 결연기업과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홈페이지(www.jjmecenat.or.kr) 참고. 문의 064)724-6689.

이번주(9월 2일~8일) 무대 & 미술

사진에 담은 제주도 신당의 오늘

강건 작가의 '땅을 품은 나무'
2014년부터 신당 찾아 작업

제주도 신당 사진전 강건의 '생개납돈짓당, 2015'.

2014년부터 제주 곳곳 신당을 찾아나섰던 강건 작가가 그 여정을 모아 전시를 연다. '땅을 품은 나무'란 이름의 제주도 신당 사진전이다.

강 작가는 신당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따뜻한 기운에 주목했다. 신당을 지켜온 단골들의 마음에서 모든 생명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읽는다.

<공연>

▶영 아티스트 콘서트=9월 3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5123-9003.

▶국립현대무용단 '스윙'=9월 4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남성 6인조 스웨덴 재즈밴드가 협업하는 무대다. 728-1509.

▶허튼굿-나눔이야기=9월 4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4693-8525.

▶김형선 바이올린 독주회=9월 5일 오전 11시 서귀포예술의전당. 010-2591-2584.

▶해어와, 다시 피다=제주도문화진흥원 기획으로 9월 6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710-7643.

▶연극 '세여자'=9월 6일 오후 7시30분, 9월 7일 오후 3시와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해설과 함께 하는 국악공연=9월 7일 오후 3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나는 불후의 편곡자다=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주최 9월 7일 오후 5시 김정문화회관. 760-3792.

▶한라윈드앙상블 추억의 팝스 콘서트=9월 7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2555-6133.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9월 7일 오후 7시. 722-0203.

▶소리섬오카리나 제주·대구 교류음악회=9월 7일 오후 7시 아라뮤즈홀. 754-4697.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9월 8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7447-4664.

▶더 퐁낭 연주회=9월 8일 오후 6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8945-0664.

▶스트릿잼 아트퍼포먼스 페스티벌 그린 제주=9월 8일 오후 2시 해변공연장. 711-5984.

<전시>

▶제주도 신당 사진전=9월 3~15일 이아 갤러리. 9월 7일 오후 3시부터는 작가와의 대화, 하순애 철학박사의 '제주도 신당 이야기' 강연이 잇따른다. 800-9331.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9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세계자연유산센터. 한국, 중국, 인도 작가들이 출품한다. 메조소프라노 김수정의 개막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710-8997.

▶문화동아리 연합전 '모드락'=9월 4~2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4202.

▶갤러리b 개관 기념 부국문화재단 소장품전 '남녘의 서정'=9월 5~12월 31일 여미지식물원. 735-1100.

▶소장품전 '회화의 맛'=9월 5~11월 10일 이중섭미술관. 760-3567.

▶제44회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김현성 초대전=제주미술협회 9월 5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임영실 개인전=9월 5일까지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800-9163.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입상작 전시=9월 5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삼다연서학회 '먹글로 희망 나누기'=9월 5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전=9월 6~15일 기당미술관. 733-1586.

▶2019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작 초청전=9월 7~12일 문예회관. 710-763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